국가직 9급(2014.4.19.) 국어 문제 해설

문 1.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9급

① 왕십리 – Wangsimri ② 울릉 – Ulleung
③ 백마 – Baengma ④ 학여울 – Hangnyeoul

[정답] ①

<국어어문규정 : 로마자표기>

① 왕십리[왕심니] – Wangsimni : 지명은 고유명사이므로 비음화에 의한 발음을 적어야 한다.
② 울릉 – Ulleung : 'ㄹㄹ'은 'll'로 적는다.
③ 백마[뱅마] – Baengma : 비음화
④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소리의 첨가. 비음화

문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9급

① 집에서만이라도 제발 편히 쉬어라.
② 요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③ 이번 출장은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④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졌다.

[정답] ②

<국어어문규정 : 띄어쓰기>

② 세대∨간 : '간(間)'이 대상 사이의 거리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① 조사('에서', '만', '이라도')끼리 결합된 경우에는 모두 붙여 쓴다.
③ 어미 뒤에 붙는 조사 '이다'도 앞말에 붙여 쓴다.
④ '-ㄴ데'가 '~한다. 그런데'의 의미일 경우에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다만 '데'가 '장소'나 '방법'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문 3. 밑줄 친 말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9급

① 그와 나는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이다.
② 된장찌개가 입맛을 돋운다.
③ 약속 날짜를 너무 바투 잡았다.
④ 그는 설레이는 가슴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정답] ④

<국어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④ 설레는 : '설레이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으로 기본형은 '설레다'이다.
② 알음 :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
① 돋우다 : 입맛을 당기게 하다. 다만 '안경의 도수를 높이다'의 의미는 '돋구다'이다.
③ 바투 : 두 사물의 사이가 꽤 가깝게

문 4.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2014 국가직 9급

① 윗목 ② 윗돈
③ 위층 ④ 웃옷

[정답] ②

<국어어문규정 : 표준어규정>

② 웃돈 : 상하의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웃-'으로 표기한다.
① 윗목 : 상하의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윗-'으로 표기한다.
③ 위층 : 상하의 구별과 관계없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일 경우에는 '위-'로 표기한다.
④ 웃옷 : 겉옷. 다만 상의(上衣)일 때는 '윗옷'이 맞는 표기이다.

문 5. 다음 글의 설명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2014 국가직 9급

>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 상한 음식이나 비위생적인 음식 먹지 않기, 물놀이를 할 때 먼저 준비 운동을 하고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기,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행선지와 동행인 말씀드리기, 외출한 후에는 손발을 씻고 몸을 청결하게 하기 등이다.

①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② 그 친구는 평소에는 순한 양인데 한번 고집을 피우면 황소 같아.
③ 나는 산 · 강 · 바다 · 호수 · 들판 등 우리 국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④ 잣나무는 소나무처럼 상록수이며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침엽수이다.

[정답] ③

<비문학 : 서술방식>

예시문의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③ 예시, ① 정의, ② 비유, ④ 비교

문 6. 밑줄 친 말의 품사를 잘못 밝힌 것은? 2014 국가직 9급

① 그는 하루에 책 다섯 권을 읽었다. [수사]
② 나도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싶다. [형용사]
③ 학교에서 재미있는 노래를 배웠어요. [조사]
④ 정치, 경제 및 문화[부사]

[정답] ①

<이론문법 : 품사의 구별>

① 다섯[수관형사] : 단위성 의존 명사 앞에서 조사가 붙지 않고 띄어 쓰면 '수관형사'이고, 뒤에 조사가 붙으면 '수사'이다.
② 싶다[보조형용사] :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욕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③ 요[보조사] : 해체의 종결 어미나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듣는 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④ 및[부사] : 셋 이상의 어구가 나열될 때 그 중 마지막 어구의 앞에 쓰여 이어 주는 말.

문 7. 다음 국어사전의 정보를 참고할 때, 접두사 '군-'의 의미가 다른 것은? 2014 국가직 9급

> 군-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①'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②'가외로 더한', '덧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① 그녀는 신혼살림에 군식구가 끼는 것을 원치 않았다.
② 이번에 지면 깨끗이 군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③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서 군살을 빼야 한다.
④ 그는 꺼림칙한지 군기침을 두어 번 해 댔다.

[정답] ①

<이론문법 : 접두사>

① '군식구'의 접두사 '군'은 '가외로 더한'의 뜻이고, '군말', '군살', '군기침'은 '쓸데없는'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이다.

문 8.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9급

① 황제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통해 그의 신하를 벌하였다.
② 그들은 산야를 떠돌며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목숨을 이어 나갔다.
③ 부모를 반포지효(反哺之孝)로 모시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다.
④ 오늘의 영광은 각고면려(刻苦勉勵)의 결과이다.

[정답] ①

<안자 : 안자성어>

① '논공행상(論功行賞)'은 '공(功)의 있고 없음, 크고 작음 등을 따져서 거기에 알맞은 상(賞)을 줌.'의 의미이므로 '~벌하였다'와는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다.
② 초근목피(草根木皮) : 풀뿌리와 나무껍질이라는 뜻으로, 양식이 부족할 때 먹는 험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반포지효(反哺之孝) :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말.
④ 각고면려(刻苦勉勵) : 온갖 고생을 견뎌 내며 부지런히 노력함

문 9. 다음 대화에서 A가 범한 어법 사용의 오류와 가장 유사한 것은? 2014 국가직 9급

> A : 여보세요.
> B : 여보세요. 김 선생님 계신가요?
> A : 지금 안 계시는데요.
> B : 어디 멀리 가셨나요?
> A : 예, 지금 수업 중이십니다.
> B : 수업은 언제 끝나나요?
> A : 글쎄요, 수업 끝나고 학생들과 면담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 B : 아유, 그럼 통화하기가 어렵겠군요.

① 내일 서울역전 앞에서 만나자.
② 손님, 주문하신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③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갔습니다.
④ 선생님은 학교에 볼일이 있으셔서 일찍 학교에 가셨습니다.

[정답] ②

<이론문법 : 높임법>

예시문은 주체 높임법에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다. '계시다'는 직접 높임에,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에 사용한다. '면담'을 통해서 주체인 선생님을 간접 높임으로 '면담이 있으시다'가 맞는 표현이다.

② '햄버거'를 통한 간접 높임이므로 '햄버거가 나왔습니다.'로 표현한다.

① 서울 역전 앞 : 잉여적 표현(의미 중복). '전(前)'과 '앞'

③ 직장에서의 언어 예절 : 직장에서는 '압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자의 직급에 관계없이 화자보다 주체의 직급이 높다면 주체높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가셨습니다.

④ 주체 간접 높임이므로 '볼일이 있으시다'가 맞는 표현이다.

문 10. 다음은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의 폐해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수정 ·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9급

Ⅰ. 서론 : 청소년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 Ⅱ. 본론 : 1. 청소년 디지털 중독의 폐해-------㉠ 가.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 야기 나. 다양한 기능과 탁월한 이동성을 가진 디지털 기기의 등장-------㉡ 2. 청소년 디지털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 부족 나. 뇌의 기억 능력을 심각하게 퇴화시키는 디지털 치매의 심화-------㉢ 다. 신체 활동을 동반한 건전한 놀이를 위한 시간 및 프로그램의 부족 라.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 3. 청소년 디지털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전문 기관 확대 나. 학교, 지역 사회 차원에서 신체 활동을 위한 시간 및 프로그램의 확대 다. ( ) -------㉣ Ⅲ. 결론 : 청소년 디지털 중독을 줄이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의 촉구

① ㉠의 하위 항목으로 '우울증이나 정서 불안 등의 심리적 질환 초래'를 추가한다.

② ㉡은 'Ⅱ－1'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한다.

③ ㉢은 'Ⅱ－2'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Ⅱ－1'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④ ㉣에는 'Ⅱ－2'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 제한'이라는 내용을 넣는다.

[정답] ④

<비문학 : 개요작성>

④ 'Ⅱ-2'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Ⅱ-3'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에는 Ⅱ-2의 '라'를 고려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 즉,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 대한 관리 및 감시' 등과 같은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요인' 중에 '시간'과 관련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간 제한'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없다.

① '우울증이나 정서 불안 등의 심리적 질환 초래'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의 폐해'이므로 하위 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② '다양한 기능과 탁월한 이동성을 가진 디지털 기기의 등장'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의 폐해'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해야 한다.

③ '뇌의 기억 능력을 심각하게 퇴화시키는 디지털 치매의 심화'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폐해'이므로 하위 항목의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문 11. 밑줄 친 용언의 종류가 다른 것은? 2014 국가직 9급

①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② 그녀는 화가 나 밖으로 나가 버렸다.
③ 자고 나서 어디로 갈 거야
④ 나도 그거 한번 먹어 보자.

[정답] ①

<이론문법 : 용언의 종류>

① 본용언(들다)+본용언(가시다)
② 본용언(나가다)+보조용언(버리다 : 앞 동사의 동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일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음을 뜻하는 말.)
③ 본용언(자다)+보조용언(나다 :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 완전히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④ 본용언(먹다)+보조용언(보다 :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

문 12.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9급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이태원이다. 여기서 '원(院)'이란 이곳이 과거에 여행자들을 위한 휴게소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리원, 조치원 등의 '원'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전기에는 여행자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휴게소를 '원'이라고 불렀다. 1530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원은 당시 전국에 무려 1,210개나 있었다고 한다.
>
> 조선 전기에도 여행자를 위한 편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주요 도로에는 이정표와 역(驛), 원(院)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세워졌다. 10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워 길을 표시했다. 그리고 큰 장승이 있는 곳에는 역과 원을 설치했다. 주요 도로마다 30리에 하나씩 원이 설치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1,210개나 될 정도로 많아진 것이다.
>
> 역이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 정보의 전달,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 통신 기관이었다면, 원은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공공 여관이었다. 원은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관이었지만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
> 원은 정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재원도 정부에서 마련했는데, 주요 도로인 대로와 중로, 소로 등에 설치된 원에는 각각 원위전(院位田)이라는 땅을 주어 운영 경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누가 원을 운영했을까? 역에는 종육품 관리인 찰방(察訪)이 파견되어 여러 개의 역을 관리하며 역리와 역노비를 감독했지만, 원에는 정부가 일일이 관리를 파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로변에 위치한 원에는 다섯 가구, 중로에는 세 가구, 소로에는 두 가구를 원주(院主)로 임명했다. 원주는 승려, 향리, 지방 관리 등이었는데 원을 운영하는 대신 각종 잡역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
> 조선 전기에는 원 이외에 여행자를 위한 휴게 시설이 따로 없었으므로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여염집 대문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점사(店舍)라는 민간 주막이나 여관이 생기고, 관리들도 지방 관리의 대접을 받아 원의 이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원의 역할은 점차 사라지고 지명에 그 흔적만 남게 되었다.

① 여행자는 작은 장승 두 개를 지나 10리만 더 가면 '역(驛)'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② '원(院)'을 운영하는 승려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각종 잡역에서 빠졌을 것이다.
③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들은 '역(驛)'에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보냈을 것이다.
④ 민간인 여행자들도 자유롭게 '원(院)'에서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다.

[정답] ④

<비문학 : 내용의 일치>

④ 5단락 :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의 내용으로 보아 민간인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원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① 2단락 : '~10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워 길을 표시했다.~'
② 4단락 : '~원주는 승려, 향리, 지방 관리 등이었는데 원을 운영하는 대신 각종 잡역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③ 3단락 : '~역이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 정보의 전달,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 통신 기관이었다면~'

문 13.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국가직 9급

> ㄱ. 과학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재에만 관심을 두고 그 실재가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ㄴ. 그러나 각자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 ㄷ. 과학과 종교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다.
> ㄹ. 반면 종교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재보다는 당위에 관심을 가진다.
> ㅁ. 이처럼 과학과 종교는 서로 관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① ㄱ－ㄹ－ㄴ－ㄷ－ㅁ
② ㄱ－ㄹ－ㅁ－ㄷ－ㄴ
③ ㄷ－ㄱ－ㄹ－ㅁ－ㄴ
④ ㄷ－ㄴ－ㄱ－ㄹ－ㅁ

[정답] ③

<비문학 : 단락의 순서>

우선 'ㅁ. 이처럼'이 '과학과 종교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우선 ㄱ. 과학과 ㄹ. 종교가 이어져야 하고 'ㄹ' 다음에는 'ㅁ'이 와야 하므로 ①은 제외한다. 또한 'ㅁ'이 '과학과 종교가 배타적'이라 했고 'ㄴ'의 '그러나'는 'ㅁ'에 대한 반론이므로 'ㅁ'다음에 'ㄴ'이 와야 한다. 결국 'ㄷ'은 'ㄴ'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이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9급

> 한국 건축은 '사이'의 개념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사이'의 크기는 기능과 사회적 위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공간, 시간, 인간 모두를 '사이'의 한 동류로 보기도 한다.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물체를 부분들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불변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본질 파악을 추구하였다면, 동양은 사이 즉, 요소들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가치와 의미의 원천을 찾았던 것이다. 서양의 건축이 내적 구성, 폐쇄적 조직을 강조한 객체의 형태를 추구했다면, 동양의 건축은 그보다 객체의 형태와 그것이 놓이는 상황 및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을 통해 미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
> 동양의 목재 가구법(낱낱의 재료를 조립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법)에 의한 건축 구성 양식에서 '사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 양식은 조적식(돌 · 벽돌 따위를 쌓아 올리는 건축 방식)보다 환경에 개방적이고, 우기에도 환기를 좋게 할 뿐 아니라 내 · 외부 공간의 차단을 거부하고 자연과의 대화를 늘 강조한다. 그로 인해 건축이 무대나 액자를 설정하고 자연이 끝을 내 주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① 동양과 서양 건축의 차이를 요소들 간의 관련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동양의 건축 재료로 석재보다 목재가 많이 쓰인 이유를 알 수 있다.
③ 한국 건축에서 '사이'의 개념은 공간, 시간, 인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④ 동양의 건축은 자연환경에 개방적이지만 인공 조형물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다.

[정답] ④

<비문학 : 내용의 일치>

④ 한국 건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우선 인공 조형물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말이 본문에 없으며, 또한 자연 환경과 인공 조형물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① 1단락 :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물체를 부분들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불변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본질 파악을 추구하였다면, 동양은 사이 즉, 요소들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가치와 의미의 원천을 찾았던 것이다.~'
② 2단락 : 동양의 목재 가구법의 특징
③ 1단락 : '한국 건축은 ~공간, 시간, 인간 모두를 '사이'의 한 동류로 보기도 한다.'

문 15. ㉠~㉣에 대한 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국가직 9급

> ㉠天텬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뎡의 올은말이,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서신고. ㉡곳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래관ᄃᆡ, 블거니 쓈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銀은山산을 것거 내여 六뉵合합의 ᄂᆞ리는 ᄃᆞᆺ, 五오月월 長댱天텬의 ㉣白ᄇᆡᆨ雪셜은 므ᄉᆞ일고.
>
> -정철, 『관동별곡』 중에서 -

① ㉠ - 은하수
② ㉡ - 성난 파도
③ ㉢ - 태백산
④ ㉣ - 흰 갈매기

[정답] ②

<고전문학 : 가사>

제시문은 망양정에서 바다를 조망하고 있는 장면이다.
② ㉡곳득 노흔 고래 : 성난 파도, ① ㉠天텬根근 : 하늘의 끝
③ ㉢銀은山산 : 흰 물결(파도), ④白ᄇᆡᆨ雪셜 : 물거품, 포말(파도)

문 16. 다음 발표에서 사용한 전략이 아닌 것은? 2014 국가직 9급

>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 질문에 "받아들일 만하다!"와 "불공정하다!"의 두 가지 대답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매우 잘 팔려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 자동차 대리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품 안내서에 표시된 가격에 20만 원을 덧붙여서 팔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의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것일까요?
>
>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매우 잘 팔려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차를 팔아 왔던 한 자동차 대리점이 할인을 중단하고 원래 가격대로 팔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것일까요?
>
> 실제로 캐나다에서 130명을 상대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1%인 반면, 두 번째 질문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에 불과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가격을 20만 원 올렸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은 가격을 올리는 방식에 대해 정반대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가격에서 인상하는 것은 손해로, 할인을 없애는 것은 이득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② 물음을 통해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③ 구체적인 사례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④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발표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

[정답] ④

<비문학 : 내용의 일치>

④ 예시문은 가격을 올리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발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도 없다.
① 3단락 :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의 견해 인용
② 1단락 :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 질문에 "받아들일 만하다!"와 "불공정하다!"의 두 가지 대답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3단락 : 구체적 사례(캐나다의 경우)
조사 결과(기존의 가격에서 인상하는 것은 손해로, 할인을 없애는 것은 이득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 17.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국가직 9급

> 그 녀석은 박 씨 앞에 삿대질을 하듯이 또 거친 소리를 질렀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의 서른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올이 굵은 깜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윈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색도 까무잡잡하다. 앞니에 금니 두 개를 해 박았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써늘하게 생겼다. 구둣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기면 구두도 그 주인의 위인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 가게 마련이다. 끝이 뾰족하고 반들반들 윤기를 내고 있다.
>
> 헤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 기피자인 박 씨는 대번에 꺼칠한 얼굴이 되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예사 손님 같지는 않다.
>
> "글쎄, 앉으십쇼. 빨리 해 드릴 테니."
>
> "얼마나 빨리 되어? 몇 분에 될 수 있소?"
>
> "허어, 이 양반이 참 급하기도."
>
> "뭐? 이 양반? 얻다 대구 반말이야? 말조심해."
>
> 앉았던 손님 두엇이 거울 속에서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눈길이 부딪힐 듯하자 급하게 외면을 하였다. 세발대의 두 소년도 우르르 머리들을 이편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고 손이 빈 민 씨와 김 씨도 구석 쪽 빈 이발 의자에 앉아 묵은 신문을 보다가 말고 몸체만을 엉거주춤히 돌렸다.
>
>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중에서-

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외모와 말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③ 초점이 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④ 등장인물 중의 하나인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연대문학 : 소설의 이해>

② 외모와 말투를 통해 '등장인물(그 녀석)'의 성격(고압적이고 매섭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내면 심리 묘사의 서술(직접적 방법)이 아니라 외양 묘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 방법이 중심이다.
④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라면 '나'가 등장하는 1인칭 시점이 되어야 하는데 제시문에는 '나'가 없다. 또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문 18. 다음 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9급

> 대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지난번 우리 조정에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너를 달래기 위하여 지방의 요직에 임명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너는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못된 독기를 발산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군주를 욕되게 하여, 결국 황제의 덕화(德化)를 배신하고 말았다.
>
> 『도덕경』에 이르기를, "갑자기 부는 회오리바람은 한나절을 지탱하지 못하고, 쏟아지는 폭우는 하루를 계속하지 못한다." 하였다. 천지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도 이와 같이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
> 지금 너의 흉포함이 쌓이고 쌓여 온 천지에 가득 찼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속에서 스스로 안주하고 반성할 줄 모르니, 이는 마치 제비가 불이 붙은 초막 위에 집을 지어 놓고 만족해하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솥 안에서 즐거워하며 헤엄치는 것과 같다. 눈앞에 닥친 삶을 즐겨 죽을 운명을 생각지 못하고 말이다.
>
> 나는 지금 현명하고 신기로운 계획으로 온 나라의 군대를 규합하니 용맹스러운 장수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용사들이 소나기처럼 몰려온다. 진격하는 깃대를 높이 세워 남쪽 초(楚)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잠재우고, 전함과 누선을 띄워 오(吳)나라 강의 풍랑을 막으려고 한다.
>
> -최치원, 『토황소격문』 중에서-

① 단호한 어조로 상대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다.
② 역사적 사례를 들어 상대의 미묘한 심리를 언급하고 있다.
③ 상대가 행한 일을 나열하며 부당한 처사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상대가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답] ②

<고전문학 : 서술방식의 이해>

② 둘째 단락에서 '도덕경'을 인용하여 모반을 일으킨 황소를 질책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역사적 사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대의 미묘한 심리를 제시한 부분도 없다.
① 전체적으로 단호한 어조로 상대의 오만한 지적
③ 1단락 : '~너는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못된 독기를 발산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군주를 욕되게 하여, 결국 황제의 덕화(德化)를 배신하고 말았다.'
④ 3단락 : '~이는 마치 제비가 불이 붙은 초막 위에 집을 지어 놓고 만족해하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솥 안에서 즐거워하며 헤엄치는 것과 같다.'

문 19.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9급

① 그는 속이 매우 <u>슬겁다</u>.
-슬겁다 :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
② 그는 <u>해거름</u>에 가겠다고 말했다.
-해거름 :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
③ 그는 <u>길섶</u>에 핀 코스모스를 보았다.
-길섶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④ 그는 책장을 <u>데면데면</u> 넘긴다.
-데면데면 : 성질이 꼼꼼하지 않아 행동이 신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은 모양.

[정답] ③

<어휘 : 순 우리말>

③ 길섶 : 길의 양쪽 가장자리. 풀이 나 있는 곳.
고샅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문 20.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국가직 9급

>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갖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
> 재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돈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수도 땜장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
>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동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
>
> – 백석, 『모닥불』 –

① 구체적 대상을 열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특정한 조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사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토속적 시어를 활용하여 향토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현대문학 : 현대시의 이해>

③ 의인화한 대상이나 표현은 없다. 작가는 '모닥불'을 통해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합일 정신과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 역사'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① 1연 : 모닥불의 재료가 되는 구체적 사물의 나열
2연 : 모닥불의 따뜻함을 나눠 갖는 대상들을 열거(차별이 없는 유대감)
② 1연, 2연 : 조사 '~도'의 반복
④ 토속적 시어 : 갓신창, 개니빠디, 짚검불, 개 터럭, 재당, 초시, 문장 늙은이, 갓사돈 등